

한국 정치사 한눈에...신안 하의도에 '아카이브 홀'

AV·VR 등 최신 기술 활용한 전시실, 미디어실 등 마련 신안군, 40억 투입 소금박물관 증축 내년 하반기 개관

대한민국의 근현대 정치역사를 한눈에 본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에 대한민국 정치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홀이 구축된다.

신안군은 최근 하의도에서 신안군수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역사 아카이브 홀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아카이브 홀'은 지난 2006년 김 전 대통령의 생가터 맞은편에 건립된 소금박물관 건물을 증축해 지상 2층, 727㎡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적인 모양은 김 전 대통령 생가에서 영감을 얻어 기존 건물에 초가지붕을 얻는 형태를 갖춘다.

아카이브 홀은 전시실, 미디어실, 관리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전시실은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 민족이 걸어온 역정을 한눈에 관망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 정치인과 정치적인 사건을 다룬다.

기존 전시 방식과 차별화하기 위해 최신 기술인 AR, VR, 미디어 아트를 폭넓게 사용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지금까지 8600여 점의 자료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아갈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염원인 인권과 평화의 정신을 기리고, 하의도를 찾는 관광객



지난 20일 하의도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하의3도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치역사 아카이브 홀' 착공식이 열렸다. <신안군 제공>

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면서 "아카이브 홀은 자료 수집이 중요한 만큼 전국민적 참여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tee@kwangju.co.kr

영광군, 다회용기 촉진 지원

영광군이 일회용품 저감 정책에 발 맞춰 다회용기 촉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영광군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회용품의 억제정책에 따라 2023년부터 다회용기 촉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2023년부터 일회용품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 제사용 촉진을 위해 관내 장례식장 6개소와 카페 54개소 등에 다회용기와 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앞서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한 결과 전남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아울러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관공서에 텀블러 자동세척기를 보급해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관내 첫 시행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완도에 해조류 활성소재 생산시설...기능성 물질 추출

250억 투입 2024년 준공...건강기능식품·화장품 원료 공급

완도에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들어선다.

완도군은 총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은 완도에서 생산된 해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시설을 통한 전처리 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데 원료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이며 2023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도군은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협력해 설계단계부

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설이 건립되면 완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해양바이오산업의 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완도군은 올해 준공 예정인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에 기업 부설 연구소 10개소, 스타트업 30개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해양헬스케어 유효성평가 실증센터와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을 연계해 연구부터 상품화까지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제품이 개발되면 해조류 생산 어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 시설 조감도.

가 소득 증대는 물론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며 "실시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인증생산시설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민 인재 육성 열기...2400여만원 기탁

군, 202억 조성...장학금 30억·교육경비 39억 등 지급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진도군 군민들이 관심이 뜨겁다.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형실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진도군 꽃게 통발협회 회장 김정문 1000만원 ▲진도군 전복협회 회장 정공진 1000만원 ▲남우의료재단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200만원 ▲진도군산관활성화 재단 사무국장 김진 135만원 ▲제일이용원 박일수 100만원을 전

민들은 "진도의 미래를 빛낼 지역 인재육성에 작은 보탬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학금을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김희수)는 현재 장학금 202억원이 조성됐다. 장학금 기탁 정기 회원은 1만원 이상으로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등이며, 자동이체로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금 기탁 문의는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061-540-3243).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안군 '멋진인생, 멋지게 내려놓기' 프로그램 호응

무안군이 최근 '웰다잉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18일 '멋진인생, 멋지게 내려놓기 웰다잉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웰다잉의 의미와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균형잡힌 생애설계, 죽음 후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됐다.

청계면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웰다잉' 교육으로, 고령화 시대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 보건소는 2020년 2월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며, 750여명이 등록돼 관리 중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반려동물처럼, 반려해변 가꾸요" 해남 송호해수욕장 반려해변 지정

송호초·환경단체 등 활동

"해변 입양하세요."
땅끝에 위치한 해남군 송호해수욕장이 반려해변으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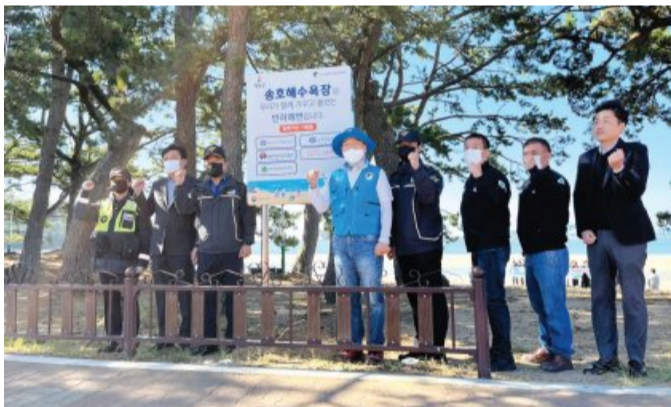
반려해변 지정은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가꾸자는 취지로 시작된 해양수산부 프로그램이다. 기업과 단체 등이 특정해변을 입양해 반려해변으로 관리하게 된다.

송호해수욕장은 송호초등학교와 송지면 송호어촌계, 지역 환경단체 등이 반려해변으로 입양

해 해변관리와 정화활동, 해양환경보호 인식개선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지난 19일에는 입양단체와 코디네이터인 (사)연안환경보전연합회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해변 입간판 설치 기념식과 해수욕장 정화활동, 해양환경 교육행사를 실시했다.

해남군은 (사)연안환경보전연합회와 해양환경 교육사업 협약을 통해 해변 주민들의 환경정화 캠페인과 교육 등의 사업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해남 송호해수욕장의 반려해변 지정을 기념한 입간판 설치 기념식이 열렸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